



# 평범한 일상에 변진 균열 사물의 내면 발견하는 힘

예술공간 이아 기획전시 2월말까지 '경계의 감각' 도내외 작가 16명 참여 내달 1일엔 토크 콘서트

시각예술 분야를 다루는 작가들이 일상을 어루만졌다. 제주도 원도심 옛 제주대병원에 들어선 예술공간 이아 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계의 감각-일상을 상상하다'란 제목의 기획전이다. 서귀포에서 활동하는 오민수 작가가 기획을 맡은 이 전시엔 도내외 작가 1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에 대한 신선한 접근과 자신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입혀 평면, 입체 작품을 빚어냈다.

강주현은 사진과 입체를 결합해 사물의 실체에 접근하려 했다. 이상원은 대량생산되고 소비되는 영상이미지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본다. 독한녀석들(고윤식, 최창훈)이 취한 금속 악기는 소리를 내는 도구가 아닌 그만의 형태와 색, 질감을 지닌 조형물로 등장한다. 이승수는 제주해녀가 실제 입었던 해녀복을 소재로 설치 작업을 벌였는데 그 위에 남아있는 거대 공기업의 이름이 의미롭게 다가온다.

고순철, 김수연, 박정선, 현덕식, 윤세열, 홍시야는 평범해 보이는 자연과 일상의 풍경에 작가의 시선을 실었다. 박능생과 홍지운은 전통적 회화기법을 차용한 작품을 내걸었다. 사진을 복제한 듯한 문장배의 작품은 그것이 무수한 선들과 질감이 만난 회화라는 점을 드러내며 일상에 균열을 낸다.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예술공간 이아 기획전. 김수연의 '메모리' 연작이 걸려 있다.

본질들을 회복하고 무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각들을 일깨우며 사물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예술가들은 매개자이자 의식을 실행하는 무당이다. 이제 일상과 예술을 나누는 경계는 무의미하다." 제주현대미술관장을 지낸 이경은의 전시 평문은 근래 공간의 문턱을 낮추라는 요구를 즐기차게 받아들인 이아를 위로한다.

전시는 2월 29일까지. 오전 11시, 오후 2시와 4시 하루 세 차례 작품 설명이 이루어지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획전과 연계해 2월 1일 오후 5시엔 '작가와 토크 콘서트'가 마련된다. 작가들의 입을 통해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자유롭게 듣고 나눌 수 있다. 문의 064)800-9334. 전선희기자

# 우한 폐렴에 제주 공공공연장 일단 '멈춤'

문예회관 어린이 공연 취소 서귀포예당 기획공연 연기 주말 개막 탐라국립춘국은 추이보며 축소 여부 등 결정

최근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제주 지역 문화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공연장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주

말부터 시작되는 도심 축제는 추이를 보면서 프로그램 축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극단은 이달 30일 오전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리려던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취소했다. 초등학교, 유치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었는데 우한 폐렴 여파로 공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며 28일 문예회관을 운영하는 제주도문화진흥원에 대한 취소를 알려졌다. 도문화진흥원은 이날부터 문예회관 대·소극장 등 공연장 대관 단체나 개

인을 대상으로 사용자 준수 사항을 안내할 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내달 14일 공연이 예고된 뮤지컬 '베토벤×클림트 운명의 키스'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달 30일부터 입장권 판매를 계획했던 이 작품은 유명 뮤지컬 배우 등이 출연하는 기획 초청 공연이다. 29일 저녁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 상영은 당일 오전까지 개최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2월 1일 남해코사를 시작으로 제주목 관아 일대 등 제주시 일원에서 2월 2-4일 탐라국립춘국 본행사를 이어가는 제주시와 제주민예총은 앞으로 2-3일 정도 우한 폐렴 양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춤하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행사 축소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도문화진흥원은 이달 29일 저녁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실시되는 1월 문화가 있는 날 무료 영화 상영을 중단없이 치른다고 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도 같은 날 저녁 수요문화극장 무료 영화 상영을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선희기자

# 편한 영화 상영 말고 색다른 문화의 날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 오늘 2020년 첫 행사 열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에 치러지는 '문화가 있는 날'은 편한 영화 상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2020년 첫 행사가 이달 29일 시

작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무료 체험, 공연 할인 등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올해 첫 문화가 있는 날 제주권 행사는 ▷선사문화 체험교실(오전 10-오후 5시 삼양동 유적 실내 체험관, 무료) ▷뮤지컬 '페인터즈 히어로' (제주관광대 컨벤션홀 오후 5시, 50% 할인) ▷항몽유적 역사해설과 토성 탐방(오전 10-11시, 무

료)이 예정되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엔 오후 5-9시 사이에 전국 주요 영화관 할인(관람료 5000원)이 이루어지고 홈페이지 문화특강 수강료도 내려받는다.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행사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무료 입장 등 영화, 공연, 전시, 박물관, 도서관,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료 또는 할인이 이루어

진다. 올해는 청년문화예술가 활동 영역 확대, 근로복지 사각지대를 우선 배려한 직장문화배달,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활성화가 추진된다.

특히 2020년에는 17개 시도 모두 지역 자율프로그램을 벌인다. 제주도는 '문화나눔 프로젝트 수놓음'이란 이름 아래 제주시·서귀포시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 문화 시설을 이용해 해녀문화, 제주4·3, 제주어 등을 주제로 체험, 공연, 교육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고재만의

## 제주어기림한판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으맹이 꼴았저, "누님, 나 독막들이 안직도 아프우다. 허설 버려봐줍서." 줌네 꼴았저. "무신 말고계! 응 허라보계. 느 저 마라래 강 허짚 쉬엄시라. 나가 유맹혼 글귀 허나 꼴아주께메이- 이제 글라. 제주어 시집 '허천바래당 푸더진다' (시인 양전형 저, 2008. 다층)엔 허는 책 소꿉이 신 글귀여계. 잘 들라. '어드레 바림시니/ 무신거 주우룻허연/ 강생이 ㄱ추록 이레 주악 저레 주악 내용살 말암시니/ 질도 멀곡 허저 글라/ 두린 아기도 멩멩허국 집에이서덜 지드들림시네/ 으맹이아- 소행이 불리 허나 싯쳐똥 왕 글귀 이악 허여사허키어."

- \* 제주어 풀이
- \*어드레 바림시니 : 어디를 보는 거니.
- \*무신거 주우룻허연 : 뭐가 팔려서.
- \*주우룻허다(주우룻하다, 중구룻하다, 중우룻하다, 중으룻하다) : <유직> 무엇에 관심을 두고서 걸로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마음을 기울이다.
- \*강생이 ㄱ추록 이레 주악 저레 주악 내용살 말암시니 : 강아지 마냥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냄새를 맡고 있니
- \*질도 멀곡 허저 글라 : 길도 멀고 어서 가자
- \*두린 아기도 멩멩허국 집에이서덜 지드들림시네 : 어린 아기도 보채 울고 집에서들 기다리잖아.

-부호- / <어름> / <어름씨> (명사) / <그림> / <그림씨> (형용사) / <유직> / <유직씨> (동사) / <어찌> / <어찌씨> (부사) / <대어름> / <대어름씨> (대명사) / <렘> / <렘씨> (수사) / <느낌> / <느낌씨> (감탄사) / <토> / <토씨> (조사) / <대소> / <대소씨> / <익은말> / <익은말씨> / <속담> / <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 문화예술지원 심의위원 추천 제주문화포럼 23주년 기념식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20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을 공개 추천받고 있다.

추천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등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타인 추천이나 자기추천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청 사업과 상당한 관련이 있거나 예총, 민예총,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회 회장이나 임원, 문예재단 임원, 지자체나 지방의회 관련자 등은 추천 제외 대상이다. 1차 접수는 마감됐고 2차 접수는 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문예재단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64)800-9131. (사)제주문화포럼(원장 정예실)이 창립 23주년을 맞아 2월 8일 오후 5시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23주년 창립기념식과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23년에 걸친 제주문화포럼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보다 발전하는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다. 1997년 창립된 제주문화포럼은 문화학교로 '건국교실', '책 읽는 사람들의 모임', '오름기행 교실', '영화보기 영어대본 읽기' 등을 운영하고 시민교양강좌로 '장자 읽기', '동아시아문화강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 문화기행, 중국 문화기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축**  
CONGRATULATIONS

**승진**  
부이사관



**이영진**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중앙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 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부이사관



**이영진**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천중학교 제25회 동창회 회장 고경중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부이사관



**이영진**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조천초등학교 제49회 동창회 회장 이동은 외 동창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진**  
부이사관



**강동원**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일1리 마을회 이장 김영수 외 리민일동**